

2019년 1월 15일

2563 | 2019

1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五臺山月精寺



새해

삼백예순다섯날 날마다,
밝은 미소와 건강이 모든분들과 함께 하기를
부처님께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지 *정병* 합장



표지사진 월정사 일주문

발행일 불기2562(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퇴우 정념
주간 자현
편집 디자인 daboDESIGN
출력인쇄 (주)에드삼컴퍼니
발행처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주소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800
팩스 033-332-6915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
등록번호 평창, 라 00004
*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월정사의 서면화된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Contents

- 02 주지 스님 법문
장엄불사에서 수행불사로
- 06 탄허스님 방산굴 법어
대중법어 大衆法語
禪이란 무엇인가?
- 09 오대산을 가다 ㉔
오대의 암자와 상원사를 둘러보다 | 자현스님
- 12 오대광명탑 모연
오대광명탑 불보살상 조성 불사
- 15 오대산 구전동화
할아버지 스님의 옛날얘기
- 첫 번째 발심 發心 | 정진희
- 21 출가학교_다녀왔습니다
아직 여전하지만 그래도 | 우음_35기
- 26 갤러리_월정사 읽기
오대산문 수행결사 이모저모
- 29 사중 소식

장엄불사에서 수행불사로

퇴우 정념 스님

오늘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이 자리에 누가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남악 회양南嶽 懷讓선사가 찾아왔을 때 6조 혜능慧能대사께서 하신 질문입니다. 그 대답을 옳게 하지 못한 회양선사가 8년간 혜능스님을 시봉하며 공부하다 확철대오한 뒤 스님에게 설사일물즉부중說似一物即不中이라, 설사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듣고 혜능스님이 환가수증부還可修證否 닙아 증득하는 이치가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 수증修證은 즉불무卽不無 어니와 오염污染은 즉부득卽不得이라, 닙아 증득하는 이치는 있사오나 물들거나 더럽혀지지 않습니다하고 대답하여 인가를 받고 6조 혜능대사의 직전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는 도리를 첫 대면에 막혀서 궁구한 끝에 바로 설사일물즉부중이다. 한 물건이라해도 맞지 않는다 하는 이치를 바로 알았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대산문 수행결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도 이 자리에 어떤 물건이 이렇게 왔는가? 하는 대답을 바로 내 놓을 수 있기 위해서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오대산문안에서 발원하고, 염불

하고, 지극히 참회하며 여러분의 본래 마음자리를 활연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천하지명산야라, 불법이 길이 번창할 것이라 기록되어 있는 오대산은 한국불교가 전래된 최초의 성산이며 오만의 불보살과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해 계시는 곳입니다.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 지극히 기도하고 부처님의 가사와 사리를 부촉 받은 후 이곳 오대산에 부처님의 정골 사리를 봉안하시니, 오대산문이 개창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지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천·효명태자가 하루 종일 염불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독경수행하면서 왕실과 국민민안을 기원하고 불법을 중흥시켰습니다. 효명태자는 후일 신라에 돌아가 왕위를 계승한 성덕대왕입니다. 이렇게 오대산은 불보살의 진신이 상주하는 가장 신성한 산으로, 수행과 염불이 끊어지지 않는 도량으로, 불조의 혜명을 전승해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불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사부대중이 부처님을 잘 봉대하지 못하고 수행과 참회를 소홀히 한 공업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장율사의 개산정신과 보천·효명태자의 결사정신을 우리가 이어 한국불교가 새롭게 중흥할 수 있는 도약의 기운을 증장시켜야 합니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 일등一登이 능제천년암能除千年暗하고 일지능멸만년우一智能滅萬年愚하나니 한 등불을 밝히면 천년의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고, 우리 한 마음이 맑고 밝아지면 만년의 어리석음이 소멸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왔던 삼독의 먹구름도 알고 보면 흘러 지나가는 법이고 밝은 광명의 실체를 알면 도리어 아름다운 풍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밖으

로 치구해 달려가는 천만가지 생각을 거두어들여 본래 하나의 고요한 자리로 돌아가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모든 두두물물이 저마다의 싱그러운 모습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청정해지고 삼업이 선업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오대산 수행결사는 바로 참선을 통해서, 염불을 통해서 또 지극한 참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본래 맑은 자리, 일심을 바로 증득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켜 생긴 분별의 마음이 모든 시비와 육도윤회의 원천입니다. 그러니 이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분별이 다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팔만사천의 가르침이 있지만 근본은 바로 빈 마음의 자리, 본래 한 물건이라해도 맞지 않는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 빈자리는 시비가 사라진 자리, 변하지 않는 자리, 바로 부동심(不動心)입니다. 그 빈자리는 생사도, 귀천도, 미추도, 선악도, 홍로일점설(紅爐一點雪)이라 화롯불에 눈이 닿자마자 녹는 것처럼 천만가지 생각과 시비와 같등이, 희노애락애오욕(喜怒哀樂愛惡慾)이라는 칠정(七情)과 육도윤회(六道輪廻)가 모두 녹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 세상과 내가 하나가 되고 빈자리에서 갖은 공능과 묘용이 발현되는 법입니다. 3박 4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참회와 기도와 참선을 통해 마음을 관조(觀照)하고 근원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지극한 발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한 이 한 물건을, 아는 한 물건이라 해도 맞지 않는 그 자리를 바로 알 때까지, 열심히 수행 정진해야 합니다.

재가불자들과 함께 하는 수행결사는 오대산문이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로 올라가면 많은 결사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여산(廬山)

동림사(東林寺)에서 혜원(慧遠, 334~416년)스님이 최초의 수행결사를 이끌었는데 거기에 연유해 오대산자연명상마을안에 있는 선원을 동림선원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누구라도 갈 수 있는 자리, 누구나 가야할 자리, 그 자리를 본래 부처가 나오기 이전의 자리, 고불미생전(古佛未生前)의 자리라 합니다. 누구나 이곳에서 도의 길, 수행의 길, 마음의 본래 자리, 본래 무일물의 자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 보조국사 지눌(知訥)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와 강진 백련사의 원묘국사 요세(了世)스님의 백련결사(白蓮結社)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런 결사들이 있어 불교를 이끌어 나아가고 불교의 기운을 새롭게 하는 힘이 되어 오늘날까지 불교가 전해진 것입니다.

오대산문 수행결사도 보천·효명태자의 결사정신을 이어 후대로 전승할 한국불교에 불법의 기운을 듬뿍 불어넣고 진작시키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사 청량선원, 월정사 만월선원, 지장암 기린선원에서 스님들이 치열하게 동안거 수행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대산문 수행결사에서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대산은 지금 어디를 가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두루 갖추어지고 오만불보살의 진신이 상주설법(常住說法)하는 희유(希有)의 도량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 힘찬 기운과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2018년 오대산문 수행결사 입재식 법문을 녹취하였습니다.

大衆法語

禪이란 무엇인가?

경허鏡虛스님

이번에는 경허스님을 말해 본다. 경허스님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근대 한국불교 선맥의 중흥조다. 계룡산 동학사 강원에서 학인들에게 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해, 은사 스님을 찾아뵈러 길을 나섰는데 때마침 유행병이 돌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어느 집에 찾아들어 쉬고자 하여도 집주인은 스님을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다. 열 집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잘 곳을 얻지 못한 채 밖에서 밤을 새웠다.

그 당시 유행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무상이 뼈에 사무쳐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들을 모두 내보냈다. 그리고는 혼자 조실방에 앉아 참선을 하면서 『전등록』을 열람하는데 막히는 언구言句가 없었다.

그런데 ‘여사미거 마사도래驪事未去 馬事到來’라고 하는 공안에 이르러 그만 말문이 막혀 버렸다. 그때에 옆방에서 어떤 처사가 젊은 스님을 붙잡고 거침없이 법담을 하고 있는 것이 들려 왔다.

처사가 물었다.

“시주들의 정성들인 공양을 받아 먹고서 공부 잘못하면 죽어서 그 시주 집에 가서 소가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떨테요?”

젊은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처사가 또 말을 한다.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오?”

경허스님이 옆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만 앞의 “나귀 일이 가기 전에 말 일이 다가온다.”는 말에서 막혔던 의문이 확 풀렸다. 동시에 심지가 밝게 드러난 것이다. 그때에 경허스님은 다음과 같이 계승을 지었다.

홀연히 사람이 콧구멍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몰록 삼천대천세계가 내 집인 줄 알았네.

6월달 연암산 아랫길에서 들사람이 한가로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이것이 경허스님의 오도송이다.

한암漢巖스님

이번에는 한암스님의 경우를 들어 본다. 한암스님이 9세 때 집에서 한학을 공부하는데 『사략史略』을 읽을 때였다. 선생님이 “태고太古에 천황씨가 있었다.”고 하자 한암스님이 묻기를, “천황씨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반고盤古씨가 있었느니라.” 또 묻기를 “반고씨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물음에 선생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암스님은 의심이 풀리지 않았다. 반고씨 이전에 누가 있었는지 궁금했다. 이 문제는 20세 때가 되어 유학을 마칠 때까지 풀리지 않았다. 22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금강산에 구경갔다가 그만 출가하고 말았다. 금강산 신계사神溪寺에 머물면서 경전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보조국사의 수심결을 읽다가,



오대의 암자와 상원사 둘러보기 남대와 지장보살의 산책로

자현 스님

① 지장보살신앙의 중심 지장암

월정사에서 오대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산내 암자가 바로 남대 지장암이다. 처음 가보는 분들은 월정사와 지장암이 너무 가깝다는 것에 놀라곤 한다. 왜냐하면 지장암은 오대산의 오대 중 남대인 기린산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지장암은 원래는 더 안쪽의 높은 곳에 있던 것이 아래로 옮겨진 것이다. 요즘에야 도로와 이동수단이 좋지만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상황이 그렇지 않았다. 여기에 1.4후퇴 때 아군에 의해서 전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암자의 형태도 변변히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암자 전체가 월정사 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다. 즉 지장암은 이사한 암자인 셈이다.

지장암은 암자의 명칭처럼 지장보살을 모시는 성지이다. 보천과 효명의 종교체험에 의하면, 남대에서 이들은 1만의 지장보살을 친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암자가 바로 지장암이다.

“만약 마음 밖에 (별도로) 부처가 있고 성품 밖에 법(진리)이 있다.’는 이 생각에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한다면, 비록 이 겁이 다하도록 몸을 태우고 팔을 태우며 (중략), (그리고) 모든 경전을 줄줄 읽고 갖가지 고행을 닦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마치 모래를 가지고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한갓 수고로움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마음에 무언가 뭉클 느껴오는 바가 있었다. 그래서 경전공부를 그만두고자 생각하고 있는데, 또 장안사 해운암이 하룻밤 사이에 전소되어 여러 사람이 불에 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이 아주 꿈같이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그래서 경 보는 것을 그만두고 경허스님을 찾아갔다.

경허스님은 당대의 고승이었다. 어느 날 경허스님이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셨다.

“범소유상 凡所有相 이 개시허망 皆是虛妄이니
약견제상비상 若見諸相非相 하면 즉견여래 卽見如來니라.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을 상 아닌 줄 보면 곧 여래를 볼 것이다.”

이 대목에서 확연히 눈이 열렸다. 9세 때부터 품어 왔던 의심이 그 때서야 확 풀리고 말았다.

현대 한국불교의 높은 봉우리를 이루고 있는 한암스님은 이렇게 하여 탄생했던 것이다.

② 지장보살을 아시나요?

지장보살은 지옥을 오가며 고통에 처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원력의 화신이다. 지장보살은 중생구제의 큰 원을 세우면서, 누가 가장 고통 받고 있는지를 관찰했다. 그것은 지옥에서 신음하는 중생들이었다. 그래서 ‘지옥의 중생들을 구제해서, 지옥이 비지 않으면 자신은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대원을 세우게 된다. 즉 지옥의 중생들을 모두 구제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고 나서야, 자신은 마지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겠다는 것이다.

이 발원은 너무나도 위대하며 감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를 특별히 ‘대원大願’ 즉 위대한 발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대원이라는 것은 지장보살을 수식하는 표현이 된다. 즉 지장보살은 대원지장보살이 되는 것이다.

③ 여승들의 수행 공간 기린선원麒麟禪院

지장암은 남대의 끝자락으로 내려왔지만, 그래도 남대인 기린산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지장암의 선원 명칭은 기린선원이 된다. 기린하면 요즘은 동물원의 기린이 먼저 떠오르지만, 원래 기린은 유니콘과 같이 뿔이 하나 달린 상서로운 동물이다. 기린에게 있어 뿔이라는 상징이 너무 유명하다보니, 뿔이 많은 동물원의 동물을 후에 기린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러나 본래 기린의 뿔은 하나이며, 못 길짐승의 우두머리가 되는 서수瑞獸이다.

지장암은 비구니, 즉 여성 스님들의 수행도량이다. 불교는 기독교 전통과 달리 깨달음에 있어서 남녀차별이 없다. 여성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부처님 당시로까지 소급된다. 여성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제자 아난의 물음에 부처님은 ‘그렇다’고 하였고, 그 결과로 불교에 비구니 출가자가 받아들여지게 된다.

기린선원의 스님들 역시 만원선원의 스님들과 같이, 매년 2차례에 걸친

혹독한 수행에 매진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남녀차이가 아닌, 노력의 차이에 의해서 각기 다른 깨달음으로 맺히게 된다.

④ 지장보살의 산책로

지장암의 위쪽으로는 다람쥐가 자주 출몰하는 호젓한 산책로가 있다. 흔히 기린선원의 스님들이 다니곤 하는 곳인데, 월정사의 전나무 숲길과는 또 다른 소련한 사색의 운치가 있다. 이곳은 지장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구제할까를 고민하면서 다니는 지장보살의 산책로이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 칸트와 헤겔이 걷던 철학자의 길이 있다면, 지장암에는 지장보살의 대원력을 만날 수 있는 옛길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현스님 대한불교조계종 월정사 교무국장, 조계종 교육이사리, 불교신문 논설위원, 울산 연평선원 원장, 월정사 부산포교원 원장,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부 교수 등을 맡고 있다. 율장, 건축, 선불교, 한국 고대사 연구로 4개의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학진 등재지에 120여 편의 논문을 수록했고, 3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오대광명탑 불보살상 조성 불사

불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발심하여 모든 번뇌를 씻어낼 수 있는 회향처이며,
무명을 밝히는 보살도의 첫 걸음입니다.

남한강의 첫물과 오대의 힘찬 기운이 하나가 되어 경천동지하는 오대산 산문 초입, 수행문화의 중심지가 될 오대산자연명상마을에 오대광명탑을 조성하고, 비로자나불상과 오대보살상을 봉안하는 대작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오대광명탑은 불자님들의 복덕이 성취되는 미래의 탑이 될 것이며, 더불어 불보살님을 친견하고 찬탄한 참배자는 육근이 청정해져서 소중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천년만년의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희유한 장엄불사에 함께 하시어 하늘로부터 돌아온 법의 맛을 찾고 깨달음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월정사 모연. 목조 비로자나부처님

동참 금액. 1인 100만원

* 시주자의 이름은 명판에 새겨 오대광명탑 3층의 비로자나 부처님 복장물로 봉안하고 2층 법보전에도 걸리게 됩니다.

모연 기간. 2017년~2019년

회향 법회. 2020년 5월 예정

입금 계좌. 농협, 355-0046-4875-43, 예금주 : 월정사

동참 문의. 원주실 033. 339. 6800

오대광명탑안에 봉안할 성보물

[월정사 모연] 비로자나부처님

[상원사 모연] 석가모니부처님과 오대불보살님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미륵보살)

[중대 사자암 모연] 금니 사경한 화엄경
(봉황 은입사 함에 봉안, 비로자나불상 복장에 모십니다.)



탄허강숙 겨울방학 특강 - 선종영가집 강의 -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은 6조 혜능대사의 제자인 영가 현각선사(永嘉玄覺禪師:637~713)께서 참선 수행하는 후학들을 위하여 찬술한 법문으로, 선불교, 선종(禪宗)의 교리를 알기 쉽게 풀이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수행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입니다.

현각선사가 남긴 10 여 편의 글을 당나라 위정(魏靜)이 편찬하여 서(序)를 쓰고, 송나라 행정(行靖)이 주를 달았으며, 송나라 정원(淨源)이 문단을 나누어 소제목을 붙인 이 글은 불교의 으뜸 종지 하나를 잡아 천태와 선, 교와 선의 종합을 진지하게 모색하였다 할 수 있으며 불교의 핵심사상을 모두 설명하고 있어 '선불교 교과서', '선의 개론서'로 불릴 만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때부터 한문본(漢文本)이 유통되었고, 세조 10년(1464)에 간경도감에서 신미대사등이 번역한 언해본(조선시대 우리말 번역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선종영가집』이 주는 통찰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자각하고, 그 마음자리에서 일체 현상을 살펴봄으로서 현대인이 겪는 불안과 환상을 바로 직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개강일	불기2563(2019)년 1월 2일(수) ~ 2월 27일(수) (설 연휴 휴강)
강의 시간	오후 7시 ~ 9시(매주 수요일)
강의 교재	선종영가집(조계사 앞 조계종 불교전문서점 구입가능)
강의자	선암 스님 봉선사 월운 스님 전강 제자, 한국고전번역원 연수부 졸업, 동대 불교융합학과 박사(한문불전 번역 전공), 현 동국대 및 중앙승가대 강사, 2019년 탄허강숙 능엄경 강의 예정
수강료	100,000원(8주)
강의 교재	탄허 현토 역해 영가집(도서출판 교림), 교재비 30,000원 별도 * 교재를 개별구입하시는 분은 수강료만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0235-02-04-145908, 예금주:윤재승(탄허강숙 관리자)
문의	02-732-2404, 010-4036-6680

할아버지 스님의 옛날얘기 첫 번째 발심發心

정진희

선재길에서 다시 만난 한암 할아버지 스님

오늘도 계실까? 월정사에서 상원사로 올라가는 선재길, 큰 스님들의 탐비가 보이는 오솔길을 다다다닥 달려갔어요. 지난 번 탐비 앞 그루터기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던 '이노옴 할아버지'의 옛날이야기가 듣고 싶어 뛰었던 거예요. 제 뽕박질 소리에 새들이 날아올랐어요. 순간 신비한 마법처럼 겨울 찬바람이 포근한 봄바람으로 바뀌더니, 햇빛에 잠깐 반짝하며 대종사 탐과 탐비가 빛났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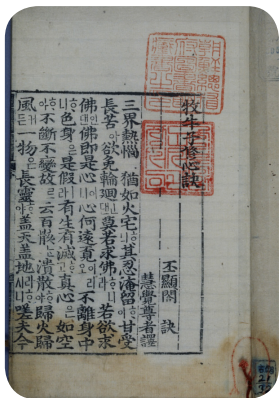
“한암 할아버지 스님이다!”

“하하, 내 이름을 그렇게 아무렇게 얹게 부르다니. 월명이 왔느냐! 하하하”

할아버지 스님이 그루터기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양팔을 벌려 반겨주셨어요. 저는 ‘스님!’ 하고 다다다닥 달려가 스님 품에 퍽~ 안겼답니다. 스님의 먹색 가사에서 풀냄새가 났고, 저를 반기는 할아버지 스님의 함박 웃음소리가 오대산을 울리는 것 같았죠.

“스님, 오늘도 옛날 얘기 해주세요!”

“이노옴~ 겁도 없이 오늘도 나를 조르려고 온 것이냐? 하하하”



목자수심결(언해)1467년
- 국립중앙도서관

“저는 궁금한 건 못 참는 걸요? 재미있는 얘기 더 해 주세요~”

스님의 옷자락을 손에 쥐고 조르는 제 머리로 꿈인지 생시인지 확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오대산 학’이라 불린 한암 스님

“윤석아, 내 별명이 오대산 도인, 오대산 학^학이었단다. 왜 그런 줄 아니?”

“학이요? 학은... 목이 길~고 하얀 털이 멋진데, 할아버지 스님은 목이 길~지도 않고 회색 승복을 입으셨는걸요? 왜 별명이 ‘오대산 학’이에요?”

“하하, 내가 고고한 학처럼 27년 동안 오대산에서 외부출입을 일체 금하고 오로지 수행에만 정진했기 때문이지!”

“27년이요?”

“그렇단다, 한창 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접어든 수상한 시절이었고, 천고^{千古}에 자취를 감추는 학이 될지언정 삼춘^{三春}에 말 잘하는 앵무새는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온 게 1925년이니, 입적하던 1951년까지 27년 동안 오대산을 나가지 않았지.”

“우와~ 저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어요?”

“그게 다~ 아름다운 수행이었단다.”

한암 스님의 첫 번째 발심^{發心}, 보조국사 지눌의 『수심결』

“왜 수행을 하셨어요?”

“깨닫고 싶어서였지! 나는 평생 한 번의 발심^{發心}을 시작으로 네 번에 걸

쳐 개오^{開悟} 했단다.”

“발심이 뭐고, 개오가 뭐예요?”

“발심과 개오도 모르느냐? 발심은 보리심, 부처를 향하는 마음이 선다는 뜻이고, 개오란 진리를 얻어 깨닫는 것을 일컫는 말이란다!”

“스님, 모르니까 여쭙본 거죠~ 모르면 물어봐야 한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하하하, 그건 맞는 말이구나. 그래그래. 네가 옳다. 비어있으니 채울 수 있는 게지! 그럼, 오늘은 깨달음 전에 마음이 움직여야 깨달음을 찾아가는 법이니 내 첫 번째 발심^{發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까?”

“좋아요, 스님! 듣고 싶어요.”

“내가 태어난 곳은 강원도 화천이란다. 아버지는 온양 방^方씨, 어머니는 선산 길^吉씨셨는데 월명이 너처럼 푹푹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지. 한 번 의심이 나면 풀릴 때까지 캐묻기를 그만두지 않았단다. 내가 22세가 되던 해에(1897) 금강산을 유람하다가, 기암절벽의 하나하나가 부처의 얼굴이 아니면 보살상을 닮은 것처럼 보여 감격해서 수행을 하기로 마음 먹었지. 금강산 깊은 곳에 있던 장안사^{長安寺}로 들어가 행림^{行林}화상을 모시고 수도를 시작했는데, 그때 진정한 나를 찾고, 부모의 은혜를 갚으며, 극락에 가겠다는 3가지 원^願을 세웠단다.

이어서 금강산 신계사^{新溪寺}에서 열리는 보운강회^{普雲講會}에서 수업하다가 보조국사^{普照國師}의 <수심결^{修心訣}>을 읽게 되었지. 그 때 읽은 글귀가 바로 나를 발심^{發心}하게 만들었고, 평생 구도의 길을 가게 만들었단다. 지금도 나에게 금과옥조와 같은 글귀여서 마음속에 품고 있단다. 들려줄까?”

만약 마음 밖에 부처가 있고

자성 밖에 법이 있다는 생각을 굳게 집착하여

불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소신연비의 고행을 하고

모든 경전을 독송하더라도

마치 모래를 찌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

오히려 수고로움을 더할 뿐이다

- 보조국사 지눌 스님의 『수심결(修心訣)』 중에서

“바로, 나의 마음(자심, 自心) 안에서 부처를 찾아내고, 뚜렷이 밝혀내는 것이 깨달음을 위한 수행의 본질이라는 말이란 다. 얼마나 멋진 진리냐! 이전에는 들어본 적 없는 원대한 말이었던 다. 그 이후로 나의 수행은 이론 중심의 교종과 선정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선종의 양쪽 수행방법을 하나로 융합하는 교선일치(敎禪一致)에 집중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정 수행과 지혜(이론이나 교학)를 함께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주장했단 다.

그 이후 나는 도반인 함해(涵海)와 함께 전국의 고승을 찾아 구도(求道)의 길에 오르기도 했지. 이것이 내가 평생 구도자의 길을 걷게 한 첫 번째 발심(發心)이다.”

“와~ 스님, 내 마음 속 부처님을 찾기 위해서는 규칙을 잘 지키면서 수행하고(戒),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며(定),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慧)는 뜻이요?”

“하하! 그렇지! 그 세 가지를 삼학(三學)이라고 하는데, 삼학을 얻으면 중생들도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단 다.”

저는 문득 한암 스님의 발심이 있게 해준 <수심결>이라는 글과 그 글을 쓰신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궁금해져서 여쭙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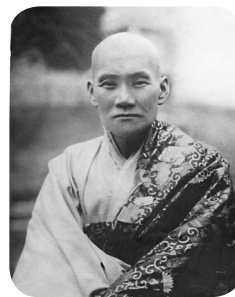
“허허... 그 이야기는 긴데.... 보조스님과 수심결에 대해 듣고 싶다면,

내일 한 번 더 찾아올 테냐? 그럼 내가 이야기해주마!”

“네, 스님! 약속해요!”

할아버지 스님과 저는 새끼손가락을 걸며 다음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약속했답니다.

한암대종사(1876~1951)는 누구일까요?



한암스님

1936년 대한불교 조계종의 초대 종정이 되었고, 3대 종정까지 지낸 큰 스님입니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1897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행름(行禪)화상을 은사로 출가하셨고, 신계사에서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수심결(修心訣)>을 읽다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한암스님은 1950년 전쟁 중 상원사가 군대에 의해 불에 타 탈 위기에 처했을 때 이것을 몸으로 막아 상원사를 지키신 분이 며, 1951년 상원사에서 세수 75세, 법랍 54세로 좌탈입망 하셨습니다.

참고

- 안문옥, 법보신문, [인물탐구] 27. 한암 스님(1876~1951). 2004.3.22.
- 법보신문 [교학] 한암 4번 깨달아... 오도송 퇴짜 맞기도. 2006.4.4.
- 심정섭, 법보신문. [심정섭 기자의 스님이 사랑한 책들] 한암 스님(중). 2012.2.29.
- 강원일보. 조계종 초대 종정 ‘한암’을 배운다. 2006.1.25.

정진희

대학에서 문예창작학을 전공하고, 18년째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다. <KBS 다큐공감> <KBS 체인지업 도시탈출> <EBS 요리비전> <EBS 하나뿐인 지구> 등에서 일했고, 책 <대한민국 동네빵집의 비밀>을 출간하기도 했다. 사람 이야기와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불자로 중대사자암 삼보일배에 참가하면서 오대산과 인연이 닿았다.



1 제5기 청년마음 출가학교 모집 1

- 수행 기간 : 2019년 2월 15일 ~ 25일(일주일)
- 합격 발표 : 출가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연락
- 선발 대상 : 15세~35세
- 선발 인원 : 30명
- 신 청 : 월정사 출가학교 홈페이지

출가出家!

막연하고 아득한,

쉽게 인연因緣이 닿지 않을 것 같은 삶의 방식,

고요한 산사에서 수행修行은 나와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호흡을 고르게 하고 다시 생각해 볼까요?

.....

숨 가쁘게 달려오던 일상에서

쉽(易)이 간절하게 필요한 순간이라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지혜知慧를 얻고 싶다면,

월정사 출가학교의 문을 열어 보세요.

나의 등불(自燈明)을 스스로 환하게 밝히고 떠나는 인생 여정에

든든한 길잡이(法燈明)가 되어줄 것입니다.

출가학교_다녀왔습니다

아직 여전하지만 그래도

우음_35기

분명 서울에서 출발할 때는 몹시 추웠는데 월정사는 따뜻하고 포근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월정사는 하얗게 눈 덮인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미지의 세계 같았다. 오대산의 맑은 공기를 마시고 넓은 자연 속으로 들어오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고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설레었다.

당시에 뮤지컬 배우로 데뷔를 하면서 선후배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실력의 한계를 겪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상태였다. 평소 불교철학에 관심이 많았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절에 다녀 인연이 있었는지 내 상황과 시기가 딱 알맞게 돼서 출가학교에 오게 되었다.

출가학교에 입학하면 남자 행자들은 무조건 삭발을 해야 하고, 여자 행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언젠가는 꼭 삭발을 해보겠노라고 예전부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회향을 하고 나서 앞으로 오디션도 봐야 하고 작품 활동도 해야 해서 망설였다.

찰중스님께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가발을 쓰면 되지”라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다. 그 말씀에 용기를 얻고 바로 삭발식을 치렀다. 머리카락을 전부 깎고 나니 산뜻하고 시원했다. 비누로 머리를 씻어 수건으로 쓱쓱 닦기만 하면 되니 정말 편했다. 회향 후에는 짧은 까까머리를 하고 서울 한복판을 누비고 다녀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가발을 써본 적도 없었다.

오히려 내 자신이 예쁘고 멋있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한 일은 출가를 하면서 한 달 동안 발성과 노래 훈련을 하지 않았는데도 노래 실력이 늘었다는 것이다. 예경의 운율을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예불을 할 때마다 참 즐거웠다.

어느 날 한 행자로부터 내 목소리가 은쟁반에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다는 칭찬을 듣기도 했다. 실제로 출가학교를 마친 후 집에 돌아와 노래 연습을 하는데 예전보다 훨씬 소리가 잘 났고 레슨 선생님도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말씀하셨다.

매일 아침저녁으로 예경을 하고 《원각경》을 외우니 자연스럽게 소리 훈련이 되었던 것이다. 정말 신기하고 기뻐찬 일이다! 그래서인지 2월초에 회향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대극장 뮤지컬 오디션에 합격했다. 부처님의 가피를 받아 좋은 일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

재밌는 추억이 된 것이 바로 ‘초코파이’다. 지금도 초코파이를 보면 한겨울 월정사에서 보낸 시간들이 자동으로 떠오른다. 보시로 들어오는 간식들 중에서는 초코파이가 단연 최고였다. 매일 울력을 하러 나가 눈도 치우고, 산행도 많이 해야 해서 체력 소모가 크다 보니 초코파이가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다. 하나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기운이 났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많이 먹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남자 행자들이 눈을 치우는 울력을 하거나 눈길 위에서 삼보일배를 할 때 군대에 다시 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아 말할 정도로 우리의 수행은 고되었다. 특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예불, 백팔 배, 요가를 하고 나면 정말 뱃가죽이 등에 달라붙을 것처럼 배가 고팠다.

그렇게 새벽일정이 끝나고 먹는 아침공양은 고기반찬 하나 없어도 정말 꿀맛이었다. 발우 공양하는 중에 학감스님이 둘러보시다가 내 밥의 양을 보고 “우음 행자, 네가 행자들 중에 제일 많이 먹는다”라며 큰소리로 놀려

서 창피했던 기억도 난다.

지장암에는 우리들을 위한 간식이 항상 배치되어 있어서 지장암에 간다고 하면 간식을 먹을 생각에 들뜨기도 했다. 우리를 위해 맛있는 간식들을 보시해주신 출가학교 선배님들과 지장암 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취침 전 별척 수행도 정말 잊을 수 없다. 속세에서 해왔던 습들이 있어서 정말 고치기 힘든 것이 나의 큰 목소리와 웃음이었다. 불시에 터져 나오는 웃음과 큰 목소리 때문에 학감스님으로부터 참 많은 벌을 받았다. 자기 전에 오늘 하루 지적받은 횟수에 백팔 배를 곱해서 절을 하는 게 벌이었다. 나는 초반에 거의 매일 백팔배를 하고 자야만 했다. 항상 덜렁대고 실수가 많던 어느 행자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자기 전에 천배를 넘게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학감스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육백 배를 하고 취침을 하는 일도 있었다.

우리가 거처하고 있는 건물은 ㄷ자 형태로 경행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설계되어 있는 곳이었다.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서 쉬는 시간에는 그 공간에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거나 눈이나 비가 내리는 바깥풍경을 감상했다. 비가 내릴 때는 도반들이 “우음이다! 빗소리 들린다!” 말하곤 했다.

학감스님이 거처하시는 방과 붙어있는 복도의 경치가 제일로 으뜸이었는데 낮에 차명상을 할 때에만 그곳에 갈 수 있었다. 차 명상은 묵언을 하면서 다도를 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다들 고요하면서 참 아름다웠다.

참선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했다. 쉬는 시간이었는데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다. 수행할 때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스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조금은 안심했다.

그 이후로 참선에 관심이 많아져서 지금도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매일 새벽예불 끝나고 하는 요가도 정말 유익했다. 요가는 대학에서도 수업을 들었고 신체 트레이닝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익숙했다. 다만 새벽요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졸음과 배고픔을 이겨내는 것이다. 한 달 동안 매일 공복상태에서 요가를 하니 몸이 정말 좋아졌고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오히려 살이 빠졌다.

출가학교에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인상적이었던 것은 <부처님 그리기>였다. 학감스님께서서는 우리가 입학한 바로 다음날과 회향하기 바로 전날, 두 번에 걸쳐서 부처님을 주제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게 하셨다.

마지막 날에는 두 개의 그림을 나란히 붙여 복도에 전시를 해서 수행 전과 수행 후의 마음가짐과 심리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나는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하며 초록색과 노란색만을 사용해서 추상화를 그렸다. 정말 지극한 마음으로 열심히 색칠을 했던 생각이 난다. 그때의 신심을 되새기고 싶어서 지금도 내 방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한 달 동안의 일이 생생하다. 지장암의 눈 내린 언덕배기에서 아이처럼 데굴데굴 구르며 행자들과 놀던 기억, 공양 후에 항상 포행을 하던 아름다운 전나무숲길, 오대산에서 눈썰매 타며 내려오다 옷 찢어진 일, 미학적인 상원사에서 먹었던 자장면 등등. 그때의 기억들을 다 풀어놓자면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를 하듯이 며칠 밤낮을 새도 모자를 판이다. 그만큼 정말 많은 것을 했고, 나에게 큰 변화가 있었으며 내 정신이 깨어있는 시간들이었다.

습관은 고무줄 같아서 노력하면 잠시 바뀌었다가도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기 쉽다. 한 달을 수행했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25년의 습관과 생각 덩어리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여전히 나는 불안하고 흔들린다. 요즘 ‘미생’이라는 말이 사회적으로 청년들에게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나도 아직 미생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미생에서 불생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씨앗’을 심는 일이다. 한 달 동안 월정사에서 시간들은 불자로서 참 값진 씨앗을 심는 시간들이었다. 불교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주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하니 조금씩 내 삶에 스며들고 있는 것을 느낀다. 출가학교에서 배운 많은 수행법 중에서 참선, 백팔 배, 사경 등을 나의 근기에 맞는 수준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만 작은 수행이라도 꾸준히 하고 있다면 나는 분명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마음 한번 내기가 정말 어렵다. 인연이 없다면 이번 생에는 체험해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시절인연을 만나 출가학교를 가게 되었고, 이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 이렇게 불자로서 생활하고 있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 내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다시 한 번 깨닫는다.

오대산문 수행결사

장엄불사에서 수행불사로~



수행결사 첫날,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입재식을 봉행하고 경전(금강경) 독송으로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행결사 둘째 날, 오전10시 중대 사자암 비로전에서 해여스님과 함께 석가모니불 정근을, 오후 2시에는 상원사 문수전에서 주지 해량스님의 인례로 문수보살 정근으로 염불수행을 하였으며, 자유정진시간에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오대산 적멸보궁을 참배하였습니다.



수행결사 셋째 날, 가장 아름다운 숲의 향기를 간직한 오대산 전나무숲길을 걸어 내려가 오대산자연명상마을 동림선원에서 김재성공감사의 자애명상, 청엄스님의 호흡명상을 체험하고, 오후에는 해용스님의 간화선, 명상마을원장 인광스님의 경청명상, 지도스님의 걷기명상을 하였습니다.



수행결사 마지막 넷째 날, 월정사 적광전에서 새벽예불 후 그동안 정진했던 공간을 깨끗하게 소지수행한 후 10시 대법륜전에서 전 대중이 참석하여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을 전계사로 모시고 수계회향식을 봉행하였습니다.

동지새알심운력



수행결사기간에 겨울임에도 온화한 날씨로 수행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수계회향식이 끝난 후 일부 불자님들께서는 귀가를 늦추고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만월선원에서 수행정진중인 선원 대중스님, 사중스님들과 함께 동지팔죽에 쓰일 새알심 빛기 울력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문수선원 삼보륜 개금불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 출가학교에서 부처님의 법을 밝히는 문수선원 삼보륜 개금불사를 모연합니다.

삼보륜은 삼보(불, 법, 승)와 삼학(계, 정, 혜)을 상징하는 세 점과 선정을 상징하는 일원상, 법륜을 상징하는 굽은 원을 결합하여 만들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의 조성으로 더 많은 분들이 출가학교를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 귀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수선원 삼보륜 개금불사에 동참하시어 그功德으로 부처님의 광명이 날로 증장하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동참금. 자율보시

계좌번호. 농협 355-0060-0318-43
(예금주 : 월정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문수성지 오대산 월정사

출가학교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전화. 033-339-6777
팩스. 033-332-6914 홈페이지 www.woljeongsa.org/chulga

월정사에서는

- **월정사 동계 소방훈련** : 12월 5일 월정사 경내에서 월정사, 평창소방서 진부 119안전센터, 오대산국립공원에서 참여해 동계 소방훈련을 실시 하였습니다.
- **신중재일 화엄기도** : 12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총무국장 인광스님을 법주로 모시고 사중스님과 90여명의 신도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무술년 음력 11월 신중재일 화엄기도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제47회 교구총회 개최** : 12월 12일(수) 월정사 동별당에서 주지 퇴우 정념의 주재로 말사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7회 교구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제4교구 사업계획을 보고하고 2019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 **만화대선사 35주기 추모다례제** : 12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월정사 적광전에서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만화스님의 법맥을 이은 상좌·손상좌스님, 사중 스님, 신도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월정사 대중창주이신 만화대선사 35주기 추모다례제를 봉행하였습니다.
- **무술년 동안거 포살법회** : 12월 12일(수) 오후 1시 월정사 대법륜전에서 선방에서 수행 정진중인 스님들과 사중스님을 비롯하여 말사 주지스님 및 소임자 스님 150여분이 동참한 가운데 주지 퇴우 정념스님을 설계사(說戒師)로 모시고 4교구 무술년 동안거 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 : 12월 15일(토) 오후 8시 대법륜전에서 사중스님들과 신도님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스님의 법문을 청해 듣고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정진법회를 봉행 하였습니다.
- **오대산사 수행결사** : 12월 18일(화) 오후 2시 대법륜전에서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소임자 스님을 비롯한 오대산사의 감원스님, 오대산문 수행결사에 동참하신 150명의 불자님들이 입재식을 봉행하고 3박 4일 동안 영불, 참선, 참회정진하고 21일(금) 오전 10시 대법륜전에서 수계회향식을 봉행하였습니다.
- **동지 새알심 빚기 율력** : 12월 21일(금) 공양실에서 주지 퇴우 정념스님과 동안거 수행중인 선원 대중스님, 사중스님들을 비롯하여 신도님들이 함께 동지팔죽에 들어갈 새알심을 빚는 율력을 하였습니다.
- **동지 법회** : 12월 22일(토) 오전 9시 30분 적광전에서 사중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참석하여 무술년 동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 **12월 오대광명 포살법회** : 12월 22일(토) 오후 2시 대법륜전에서 사중스님들과 신도님들이 참석하여 오대광명 포살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사)문수청소년회에서는

- **임시 이사회 개최** : 12월 17일 제5차 임시 이사회의를 개최하고 산하 기관인 강릉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소장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 **진부노인회관 급식봉사** : 12월 22일 진부지역 청소년은 진부노인회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봉사를 하였습니다.
- **강릉불교학생회 모임** : 12월 29일 강릉불교학생회 20여명은 관음사 설법전에서 유엄스님과 함께 '자원봉사'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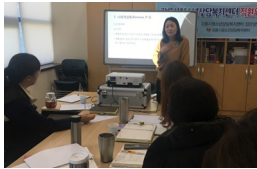
- **2018년 운영사업 보고대회** : 12월 5일 강릉시청소년수련관에서 관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일반 시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2018년 본 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보고하였습니다.
- **직원역량강화 워크숍** : 12월 12일 열린 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수를 초빙하여 사례개념화를 주제로 업무능력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수호천사봉사 동아리** : 12월 1일 수호천사 봉사 동아리 팀은 강릉시 성산면 일대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 **바리스타 실기시험** : 12월 8일 강릉영동대에서 꿈드림 청소년들이 바리스타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에서는

- **강릉원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결연** : 12월 18일 강릉원주대학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본 쉼터에 40만원을 기부하고 입소 청소년들과 1대1 멘토프로그램 및 연극, 캘리그라피 등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연을 맺었습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 12월 19일 강릉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의 주관으로 강릉시청 여성청소년가족과 강릉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강릉시 청소년 관련 12개 유관기관이 모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월정사노인요양원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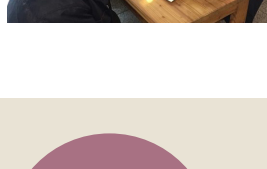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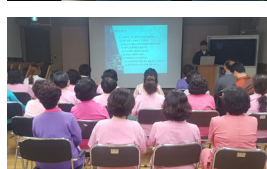
- **부부민요봉사** : 12월 12일 매월 월정사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민요봉사를 해 주시는 "알콩달콩 부부민요봉사단"의 흥겨운 장단에 맞추어 어르신 40여명은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맛있는 요리교실** : 12월 13일 요양원 입주 어르신 60여명은 각 층별로



요리교실을 열고 동그랑땡을 만들고 맛있는 시식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 **12월 노인 학대 예방 교육** : 12월 4일 동해시노인요양원, 5, 11, 12, 19일 속초 반야노인요양원, 7일 강릉 해드림요양원, 17일 강릉 교항리 노인복지센터, 18일 속초노인복지센터, 21일 삼척 동산복지마을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노인 학대 사례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 상담** : 12월 4일 강릉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5일 강릉 주문진읍사무소, 6일 강릉시북부노인종합복지관, 14일 강릉 주문진읍사무소, 19일 속초시노인복지관, 26일 강릉 주문진읍사무소에서 노인 학대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강원 동부지역 6개 시, 군의 학대 사례를 발굴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상담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 **강원도 효(孝) 지킴센터 성과평가회 참석** : 강원도 지역사회 노인인권증진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학대, 노인인권침해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효(孝) 지킴센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는 12월 20일 2018년 강원도 효지킴센터 성과평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평가회에서 강원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심재혁 상담원이 강원도지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 **2018년 4분기 사례 판정회의** : 12월 27일 행정 사회복지 법률 의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들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사례회의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의 개입 및 처리방향에 대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2018년 4분기 사례판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주소 변경, 배달 사고 등 「오대산향기」에 대한 문의 사항과 특별히 법보시를 하고 싶은 단체, 이웃이 있으시면 오대산 향기 편집실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정기구독 법보시 금액 1년 회원 : 2만 원 / 10년 회원 : 20만 원

정기구독 법보시 신청 월간 오대산 향기 편집실

전화. 033) 339-6800 / Fax. 033) 332-6915

(우)25318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월정사 종무소

홈페이지. <http://www.woljeongsaa.org>

법보시 신청 계좌번호 농협 355-0019-0684-13 (예금주 : 월정사)



2019년 기해년 새해기도 안내

입춘기도

입 재 2019년 2월 2일(음 12. 28)
회 향 2019년 2월 4일(음 12. 30)
동참금 50,000원

정초 신중재일 화엄기도

입 재 2019년 2월 9일(음 1. 5)
회 향 2019년 2월 15일(음 1.11)
동참금 50,000원

인등(개인)

적광전 1년 : 240,000원
삼성각 1년 : 120,000원

* 납부방법 : 일시 납부, 매월 납부, 자동이체

연등(가족 일년등)

중앙등 : 500,000원
적광전 : 150,000원
삼성각 : 150,000원
수광전 영가등 : 100,000원

계좌번호. 농협, 313065-55-000014, 예금주 : 월정사
문의. 원주실, 033. 339. 6600~1

1월

불기2563(2019년)

오대산사 주요행사



03일(목)	53기 출가학교 입학식(월정사 문수선원)
05일(토)	가행정진 법회(중대 사자암)
06일(일)	초하루 법회(적멸보궁, 상원사)
09일(수)	문수재일 지혜법회(상원사)
10일(목)	신중재일 화엄기도법회(월정사 적광전)
13일(일)	성도재일
16일(수)	인허대선사 16주기 추모다례재(월정사 적광전)
19일(토)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법회(월정사 적광전)
26일(토)	오대광명 포살법회(오대산자연명상마을)

OMV 음계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예약문의

T. 033)333-6500
 www.omv.co.kr

Odaesan Meditation Village
오 대 산 자 연 명 상 마 을

명 상 법 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음뵈OMV는
내가 나의 삶에 선물하는 자유로운 플랜폼이며,
명상으로 편안하고 자연의 기운으로 건강해지는
Healing Stay입니다.

숲에서 탄생하여 하늘로 피어오르는 고요한 땅,
사람과 자연이 바람의 빛깔로 모인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몸과 말과 생각으로 물든 모든 습관들을 지우고
행복을 담아낼 귀한 인연을 명상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쪽의 맑은 기운을 품은, 숲을 닮은 수행자!
햇빛처럼 빛나는 바로 당신입니다.



입재. 2019년 2월 9일 토요일 15시 **회향.** 2019년 2월 10일 일요일 12시

장소. 오대산 자연명상마을(OMV)

프로그램. 경청명상, 자애명상, 걷기명상, 치유요가

동참비. 1인 5만원(2인 1실 사용)

문의.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033. 333. 6500 / 월정사 종무소 033. 339. 6800